

A Daily Bread

날짜: 5785 년 시반월 29 일 (2025 년 6 월 25 일)

토라 포션: 코라흐

주제: 왜 기름은 왕의 상징인가

민수기 16 장 1 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라흐가 취하니라." 성경은 "코라흐가 논쟁하였다"거나 "회중을 모았다"거나 "말하였다" 혹은 "명령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단지 "코라흐가 취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어떤 것을 취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그를 이끌어간 것, 즉 욕기 15 장 12 절의 말씀 – "어찌하여 네 마음이 너를 이끌며 네 눈이 암시하는가?" – 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미드라쉬는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베레쉬트 라바 34:10): "악인은 마음의 지배를 받지만, 의인은 마음을 지배한다." 욕기의 구절("어찌하여 네 마음이 너를 이끄는가?")을 코라흐에게 적용함으로써 미드라쉬는 그가 감정과 욕망에 이끌리는 악인의 방식으로 행동하였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쉬는 또한 코라흐의 내면을 다음과 같이 비추어 봅니다. 랍비 레비는 말합니다: 코라흐는 왜 모세와 논쟁하였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짜르의 아들이니, 곧 기름의 아들이다." 신명기 7 장 13 절에 "그분께서 네 '티로쉬'와 네 '이짜르'와 네 소 떼와 양 떼의 새끼를 네게 복 주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네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될 일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티로쉬'는 포도주를, '이짜르'는 기름을 뜻합니다.

코라흐는 자신을 "기름의 아들"이라 칭하며, 그의 아버지 이름 '이짜르'가 곧 기름을 뜻하므로, 기름과 같이 자신도 위로 떠오를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액체 가운데 기름은 항상 위에 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나의 조부 케hati 내 아버지의 이름을 '이짜르'라 지은 것은 그가 성령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이짜르의 후손인 나 코라흐가 그의 다른 자손들보다 부와 지혜와 업적 면에서 우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추론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케hati 아들의 이름을 '이짜르'라 지은 것은 코라흐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 때문이었습니다. 케hati는 사무엘이 이짜르에게서 태어나리라는 것을 성령으로 미리 보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스가랴 4 장 14 절에 "이는 기름의 두 아들이니,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에 아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 구절은 거룩한 관유로 기름부음을 받은 아하론과 다윗을 뜻합니다. 이들은 기름부음으로 인해 각각 제사장직과 왕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A Daily Bread

코라흐는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 둘은 단지 겉으로 기름을 부은 것뿐인데도 제사장직과 왕권을 얻었거늘, 나는 본래 ‘기름의 아들’이니, 기름부음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제사장과 왕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오해는 코라흐가 모세에 반역하게 만든 논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었습니까? 기름은 실제로 항상 위로 뜨므로, 뛰어난 지위와 리더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코라흐의 오류는 기름의 상징을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 있었습니다. 코라흐는 기름이 위로 떠오르는 성질을 근거로, 지도자는 평민과 거리를 두고 군림하는 듯한 태도로 위엄을 유지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왕이 정기적으로 토라를 낭독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보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17:20).

물론 지도자가 품위를 유지하고 일정한 위엄을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랍비 유다 하나시(Rabbi Yehudah HaNasi)는 임종 전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하였습니다: “귀족들 가운데서 통치하라. 학생들에게 위엄을 보여라. 그래야 그들이 너를 경외하리라.” (케투보트 103b)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에 한정됩니다. 진실한 지도자, 심지어 왕조차도 도덕적으로 고귀한 자들 앞에서는 내면에 겸손을 간직해야 합니다. 탈무드는 다윗 왕조 출신으로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사례를 전합니다. 그는 토라 학자를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껴안고 입 맞추며, “나의 스승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하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앞서 말한 유다 하나시의 권위 있는 지도자상이 모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여호사밧이 이러한 겸손을 오직 개인적인 만남에서만 드러냈다고 설명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왕권의 위엄과 권위를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백성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는 공적 위치에서 권위를 드러내야 할 때에도, 내면에는 항상 겸손함을 간직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름이 왕권의 상징이 되는 것일까요? 코라흐의 생각처럼 기름이 위로 뜨기에 높은 지위와 특권을 나타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기름은 겸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올리브에서 추출되는데, 이는 열매가 눌리고, 갈리고, 부서져서 완전히 짓이겨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왕은 자신의 교만한 본성을 극복하고, 권위 있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내면에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자여야만 성숙한 통치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A Daily Bread

코라흐는 자신이 "기름의 아들"이므로 본래부터 위대한 존재이며, 굳이 기름부음을 통해 지위가 세워질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오만함은 오히려 그가 누구보다도 먼저 겹손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할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샬롬.